

치유농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 운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10일~12월 24일 우림초 1~2학년 대상 추진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오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림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치유농업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경험하며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은 물론,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 개선, 생명의 소중함 인식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진행되며, 학년별로 1개반씩 총 16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학년은 대상으로는 '맘껏사랑할림' 농장이 참여해 '텃밭정원의 꿈' 프로그램을 맡는다.

먼저 '텃밭정원의 꿈' 프로그램은 △삽과 이음표 만들어 자기소개하기 △식물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에 대해 알기 △동반식물을 알고 가족과 동반의 의미 알기 △친환경 재배와 긍정환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림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경 만들기 △자신의 꿈을 담은 액자 만들기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과 새로운 환경변화 이해하기 △반려식물 만들고 감사한 대상에게 나누기 △허브 활용하여 감자 깨우기 △수확하여 요리하기로 결실의 기쁨 맛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개구리의 텃밭정원'은 △개구리 동화책 읽고 자기소개하기 △씨앗

관찰하며 오감 자극하기 △팻말 만들기 △창의성 기르기 △텃밭에서 놀며 신체활동 하기 △식물 세밀화 그리기 △반려식물과 교감하기 △꿈 나누고 응원하기 △리스 만들기 소원 빌어보기 △허브비누 만들기 감각 자극하기 △칭찬 꽃바구니 만들기 △수확하여 요리하여 나누기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전·사후 설문 등을 통해 치

유농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치유농업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전북에서 전주시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치유농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협업을 통해 치유농업이 자녀의 우울감 감소(39.2%)와 신체 저하 요인도 감소(48.8%) 등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심리전문가 관찰 결과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주의집중, 자기통제, 관계지향 점수가 1회기 8.2점에서 12회기에는 18.4점으로 2배 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을 매개로 모든 학생이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 치유농장주와 치유농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도서관에서 책놀이 즐겨요”

전주시, 12개 시립도서관서 하반기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도서관에서 6세 이상 어린이와 초등학생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도서관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에서는 책과 연계한 연극놀이와 창의미술, 생활공예, 한국사 등 총 24개 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에서는 '신나는 책놀이터, 연극 놀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효자동서관에서는 '유아미술, 테마형 역사수업: 별난 역사 복복'을 주제로 한 책놀이가 진행된다.

또한 △유아 창의미술, 레고놀이(완산도서관) △이야기 안에 있는 요리, 책으로 만나는 생활공예(삼천도서관) △사부작사부작 공작시간, 과학 Talk! Talk!(서신도서관) △창의 Go 보드 Go 만들 Go, 책이랑 놀이랑(평화도서관) △도서관 1



열 한국사, 책이랑 놀이랑(송천도서관)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어린이 창의미술(금암도서관) △책이랑 함께하는 전통놀이, 동화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요리쿠퍼터(인후도서관) △창의력 풍풍! 오감만족, 책이랑 요리랑(아중도서관) △나는 세계 요리사, 보드게임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쪽구름도서관)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 책과 함께 꿈꾸는 미술놀이(건지도서관) 등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어린이들이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읽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도서관을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일부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책놀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전통시장 흥겨운 행사 이어진다

모래내시장 치맥&가맥축제 · 신중양시장 한사발 막걸리축제 성료... 9월에도 가요제 · 축제 다채

전주시가 지난달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통시장 축제에 이어 9월에도 다양한 가요제와 시장별 축제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펼쳐진 '제7회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과 '제2회 전주 신중양시장 한사발 막걸리축제' 등 전주지역 전통시장의 여름밤 축제에 1만여 명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제2회 한사발 막걸리축제와 제7회 치맥&가맥 페스티벌은 해가 거듭될수록 풍성해진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거리뿐 아니라, 빠질 수 없는 전통시장의 먹거리까지 더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됐다.

시는 이들 한여름밤의 축제에 이어 오는 9월에도 각 시장별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할인행사 등을 진행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풍남문상점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9월 10일) △서부시장



제7회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상점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9월 23일) △전북대학교로상점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9월 24일)가 차례로 펼쳐진다.

또한 2024 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의 일환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경품행사도 준비됐다.

먼저 오는 9일과 10일에는 총진식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신중양시장 '한가위 동행축제'가 펼쳐지고, 12일과 13일에는 서부시장상점가 대한민국 동행축제에서는 버스킹과 소화행 경품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오는 27일과 28일에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서부시장상점가에서는 초가을밤의 정취와 함께 '제6



제2회 전주 신중양시장 한사발 막걸리축제

회 더~좋은반향 가맥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중소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에 선정돼 서부시장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행사로, 볼거리 가득한 문화공연과 풍성한 먹거리, 플라마켓이 더해져 초가을의 밤의 정취를 더하게 된다.

김중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흥겨운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효자3동, 추석맞이 일제대청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주민센터(동장 오현순)는 2일 통장협의회(회장 최정희) 등 자생단체 회원 30여명과 함께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회원들은 주민센터 주변을 시작으로 삼천면 일대·관내 공원 등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효자3동에 적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요 보행로의 잡초 제거 등의 관내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청소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환영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생단체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대청소가 깊어지며 동시에 관내 주민들에게 번영된 쓰레기 배출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최정희 통우회장은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구역을 청소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향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효자3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의원)가 2일 전주 동완산동의 완산시립 도서관 관과 여의동 쪽구름 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재개관 도서관 방문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의원)가 2일 전주 동완산동의 완산시립 도서관과 여의동 쪽구름 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재개관한 완산, 쪽구름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

속 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프로그램 및 향후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책문화산업도시로 자리 잡은 전주시의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는 현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신뢰받는 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